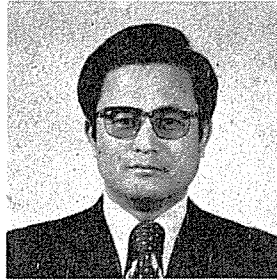


1次 保健診療와 臨床檢査

Primary Health Care의
思考方式



安商玉

健康에 關하여 現存하는 諸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有力한 手段이 摸索되고는 있지만 特히 새로운 対応策으로서 Primary Health Care가 注目되게 되었다.

予防醫學運動의 中核을 爲한 集團檢査는 Primary Health Care 가운데서 어떠한 位置에 있고 어떻게 展開되어야 할 것인가? 에 對하여 現狀과 將來에 關하여 探門했다.

一次診療에 對한 思考方式은 오늘날 醫療, 保健을 展開하는 時點에서 하나의 出發點, 또는 하나의

方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予防醫學事業, 特히 臨床檢査(여기서 말하는 臨床檢査는 病院內의 檢査에 局限하지 않고 集團檢診業務도 包含한 廣意의 것)와 一次診療의 接近方法이라든가 또는 臨床檢査라고 하는 것은 一次診療中에 어떠한 位置에 있다고 理解되고 있는가 또 어떤 方向으로 進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등에 對하여 생각해 봄이 좋겠다.

그러면 Primary Health Care 或은 Primary medical Care 에 關해서는 여러가지 思考方式이 全

해지고 있다.

美國의 albert 와 Shaney 는 Primary Care 란 最初의 接觸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繼續의 必要한 援助를 提供, 患者의 綜合調整 等を 特徵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

Esdes 는 第一로 accessibility, 繼續性, 廣範圍한 서비스, 調整 等を 必要條件으로 強調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이상것들에 앞서 Andras 는 一般의 疾患의 診斷, 治療, 心理的 評價, 社會經濟的 査定, 預防醫學, 患者教育, 包括的인 患者管理 等を 들고 있다.

이같은 觀點에서 볼때 이들에게서 共通되는 것은 包括的이라고 하는 內容이며 繼續的이라는 말로서 거기서 共通點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日本에서도 聖누가 病院의 日野原 博士는 Primary Care 란 「個人이나 家族이 最初에 接하는 Health Care System」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醫師는 基本的 醫療서비스를 提供하면서 팀을 잘 調整하면서 適切하게 患者의 安全을 期하는 것이 Primary Care 인 것이다.

어느 時點에서만 注意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日常生活에 連續적으로 配慮해서 높은 健康水準을 維

持할 수 있게 教育하는 일도 重要하다는 것이다.

한편 1920年 英國에서 Towson 委員會의 報告에 따르면 一般醫에 依한 診療와 組織的인 預防의 諸般 서비스를 統合하는 施設로서 Primary Health Center, 이것을 Back-Up하는 施設로서 入院서 서비스를 提供하는 Secondary Health Center 의 System을 提唱한바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Primary Care 의 Primary 라는 말은 1920年에 Towson 委員會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지금 美國에서는 專門醫가 아주 많아져서 이것에 對抗手段으로서 Primary Care, Family Medicine 이라는 말이 많이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 Primary Care 를 担当하는 것은 美國에서는 一般醫, 家庭醫라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사람들이 特히 배워 익혀야 할 醫學을 Family medicine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預防醫學的인 指導는 勿論 臨床의 急性이나 慢性的 問題를 다루며 生活指導까지 할 수 있는 醫師를 指稱하고 있다.

알-마타宣言

이같은 흐름속에 實際問題로서 Primary Health Care 가 注目된 것은 Primary Health Care 國際會議가 蘇聯의 almarta에서 열려 1972年 9月 12日 “알마-타宣言”

을 集約했던것에 連유한 것이다.

오늘날 이 一次診療가 醫療라든가 保健을 지탄하는 하나의 思考方式으로서 強調되고 있는것은 實은 알마-타 宣言을 始發로 쓰여지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 알 마-타 宣言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主된 內容은 「健康은 基本的인 人間の 權利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健康狀態에 關해서 存在하고 있는 커다란 隔差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을 이 宣言에서 提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Primary Health Care의 特徵으로써 「個人이든 集團이든 간에 Health Care의 企劃과 實踐에 參加하는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國際的으로 「西紀 2,000年까지 世界全人類에 依해 社會的, 經濟的으로 生産的인 生活을 할 수 있는 健康水準을 達成해야 한다」라고 하는 點이 提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떠한 點에 留意하면 좋으나 하는 것으로 이 알-마타 宣言이 意味하는 바는 「Primary Care란 自助와 自決精神에 立却하여 地域社會 또는 國家가 그의 開發水準에 따른 費用負擔範圍內」에서 開發程度에 맞추어 可能한 限 費用을 負擔하고 모든 사람들의 充分한 參與에 따라서 實用的이며 科學的으로 適正하며 그 社會의 受容 節次와 技術에 바탕을 두고 實施

되며 展開되는 Health Care이다」라고 불리워지며 또 여기에도 「國家保健System과 個人, 家族, 地域과도 接하는 最初의 段階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繼續的인 Health Care過程의 第一段階로서 位置가 確立되어 健康에 關係되는 모든 Spectol을 對象으로 한다」라는 것이 強調되고 있다.

具體的인 內容으로 「社會的, 生物醫學的 保健제-비스 위에 研究成果의 應用과 公衆衛生의 經驗에 基盤을 두고 健康增進만이 아니고 予防, 治療, 再活제비스 等의 實施」가 對象이 되고 있는것도 提唱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Primary Health Care를 생각해 볼때 根源的인것은 英·美에서는 Primary는 最初에 接觸한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 알 마-타 宣言中에서는 다음과 같이 集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自助와 自決을 基礎로 그때 그때의 주어진 條件에다 이 精神에 바탕을 두고 形成되는 Care라는 것을 意味한다. 具體的으로는 사람들의 充分한 參加에 依하여 適正한 節次와 技術에 바탕을 두고 實施되는 保健活動으로서 이것이 바로 Primary Health Care라고 定義되기 위해서는 包括的이고 繼續的이어야 함이 強調된다」라고 集約함이 可能하리라고 본다.

(필자=健協 사무총장)